

현행수의를의 실태 및 문제점

조 효 숙 · 안 지 원*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Current Shrouds

Hyo-Sook Cho · Jee-Won Ahn*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 · Instruct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
(2002. 3. 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current ready-made shrouds. Current shrouds were formed after the 20th century and therefore are quite apart from its traditional precedents of *Chosun* Dynasty. In this respect, several problems can be pointed out.

1. The use of natural colored hemp as a primary textile of current shrouds is far from our tradition. Silk, ramie, and cotton have to be used together with hemp. Also, more variety of colors can be used other than natural white.

2. The size of ready-made shrouds has to be categorized at least into three: large, medium and small

3. The pattern and sowing method of *Dopo*(도포) and *Wonsam*(원삼) should be corrected in line with those of the traditional *Dopo*(도포) and *Wonsam*(원삼).

4. The design and items of current ready-made shrouds have to break away from the standardized convention and should seek more of a variety that our rich tradition provide.

5. The rational index should be suggested so that consumers can compared the quality and price of ready-made shrouds available at their hands.

Key Words : *current shroud*(현행수의), *actual condition*(실태)

I . 머리글

우리민족은 과거부터 儀禮를 중시하였으며, 우리의 정신 세계 근간을 이루는 '내세사상'과 '효사

상'으로 인하여 冠婚喪祭의 四禮 중에서도 특히 喪禮를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왔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님의 수의를 좋게 마련하여 장례를 잘 치루는 일은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와 ‘효’의 표현으로 여겨져서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화된 현대인의 생활 속에 아직까지도 한국적 정체성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상장례 문화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수의는 전통복식의 형태를 강하게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의 상장례 문화는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수의형태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옷을 입히는 ‘염습’과정도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병원에 소속된 전문직업인 ‘염사’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들이 수의를 직접 마주할 기회는 점차 없어지고 동시에 수의제작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 수의 형태는 장례업체의 상업성과 ‘염사’의 편의주의적 사고에 근거하여 잘못 변질되고 이로 인하여 한국 수의문화는 과거의 전통성과 현재의 상업성이 혼재되어 뿌리를 알 수 없는 형태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묘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여 현행수의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통 수의에 관한 문헌자료 및 출토수의를의 발굴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수의를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에 올바른 수의문화를 정립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의 기성수의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현재 시판되고있는 기성수의를의 품목 및 소재, 가격, 형태 및 치수 등을 조사하여 역사적 근거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번 수의를의 조사 대상은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기성수의로 한정하였다.

II. 수의를의 변천과 현행 기성수의를의 특징

1. 수의를의 변천

壽衣는 좁은 의미로는 염습시에 屍身에게 입히

는 옷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옷 이외에 시신을 싸는데 필요한 모든 용품을 포함한다. 수의도 다른 복식류와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유교 사회인 조선시대에는 부모에 대한 효심과 생명의 존엄성에서부터 비롯하여 상장례가 이루어졌다.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자식은 부모의 육신을 소중히 여겼고, 마지막 가시는 부모님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한 殮襲과정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상장례 절차이며, 수의를 마련한다는 것은 실용적 목적 이상의 효를 상징하는 의례였다. 따라서 당시의 수의라 함은 돌아가신 분에게 입히는 ‘襲衣’ 이외에도 ‘小殮衣’, ‘大殮衣’로 구분하여 수 십벌의 의복과 염습구들을 포함하였다.¹⁾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조상들은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았고, 내세는 현세의 계속이며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로 여겼으므로 수의용 복식은 생전에 착용하였던 복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유관자들은 생전의 예복인 관복을 입히고 일반인들은 생전의 가장 좋았던 의복인 혼례복을 그대로 입기도 하였다.²⁾ 따라서 조선전기나 중기의 유물 중에는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흔적이 있는 의복이 출토되기도 하였다.³⁾ 그러나 조선후기부터는 생전에 입었던 의복보다는 특별히 수의용으로 좋은 비단을 써서 새롭게 만든 수의도 적지 않게 발굴되었다.⁴⁾

1895년 갑오경장 이후에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서양문화의 도입과 함께 계급이 타파되고 양반과 서민의 구별이 없어지는 사회현상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 복식도 신분의 차별 없이 간소화, 단순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타의에 의해 우리의 전통이 말살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복식 문화는 물론 제반 문화 영역에서도 하층문화가 상층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의 상향이동이 발생한다. 한 예로 일본 정부는 조선 양반사회의 전통 상장례를 지양하고 상장례의 간소화와 더불어 공동묘지 제도를 처음으로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강요하였다.⁵⁾ 이러한 영향으로 조선시대 양반이나 중인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던 비단으로 만든 전통 수의는 행정 중심에서 가까운 서울과 경기지방부터 점차 사라지고, 반면에 서민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값싼 삼베 수의가 양반과 서민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당시에는 윤달이 되거나 상을 당하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직접 수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통 수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계승된 것이 아니고, 넓게는 지방별로 좁게는 집안별로 구전이나 경험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지방별로 수의의 형태 및 품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60년경부터는 한복의 유통구조가 변하여 한복 맞춤형이 등장하였으며 수의도 가족이나 친지들이 집안에 모여서 만들기보다는 포복점이나 한복맞춤집에서 장만하는 수의 맞춤 형태가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수의의 소재가 삼베 일습은 아니었다. 1969년에서 1987년간의 《韓國民俗調査報告書》에 의하면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에서는 전부 삼베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충청도는 겉을 명주로 하고 안을 삼베로 하는 경우가 70%정도이었으며, 전라도 역시 겉을 명주로 하고 안을 삼베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상도에서는 안팎을 명주로 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삼베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⁶⁾

1980년경부터는 수의의 기성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기에는 수의를 장의업체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소규모 기성 납품업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1990년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장의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성복 수의를 장의업체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하여 기성복 수의의 대중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기에는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유통 체계를 갖춘 대형 수의제조업체도 등장하는 등, 전체 수의의 95% 이상이 기성복으로 대체되고 있다.⁷⁾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수의는 개화기 이후 100여 년 동안 사회문화의 변천과 함께 수의의 종류와 형태 소재 등이 조선시대의 모습에서 서서히

변화되어 현재의 기성복 수의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성복 수의의 등장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인 수의 상거래를 영위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기성수의 생산업체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수의가 기성화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2. 현행 기성수의의 특징

1) 수의의 품목과 소재

1990년대 이후에는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유족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기성 수의를 구입하게 되었다. 삼성의료원, 중앙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백병원, 차병원 등에 소속된 대표적인 대형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성 수의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남자용은 表衣로 도포(홀)와 도포끈이 있고, 內衣로 속저고리(홀)와, 속바지(홀), 걸저고리(겉), 걸바지(홀), 두루마기(홀)등이 있으며, 그 밖에 천금, 지육, 베게, 염포, 교포(멧베), 떡목, 악수, 소낭, 버선 등의 부속품이 있다.

여자용은 표의로 원삼(홀)과 대대, 내의로 속저고리(홀)와 속곳(홀), 단속곳(홀), 속치마(홀), 걸저고리(겉), 걸치마(홀)등이 있다. 그 외에 천금, 지육, 베게, 염포, 교포, 떡목, 악수, 소낭, 버선 등의 부속품이 있다.

기성수의의 품목은 대부분 위와 같으나 맞춤형 수의는 가격대에 따라 품목의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격대가 높은 수의 일습에는 천금 이외에, 소렴금이나 대렴금 중에 하나를 더 갖추기도 하였고, 여자의 포 종류에는 원삼 이외에 당의를 모두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며, 두의용에도 얼굴을 싸는 떡목 외에 고깔형의 머리싸개를 더 갖추기도 하였다. 반면에 저가 수의 일습에는 가장 곱슬인 남자의 도포와 여자의 원삼을 없애고 두루마기로 포를 대신한 경우도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기성 수의의 소재는 대부분이 삼베라 부르는 소재 마직물이다. 성분 표시

라벨에는 '마 100%'로 적혀 있으나 원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안동포와 남해포 정도만 한국에서 재배된 대마 원사로 제직하고, 그 외에는 한국산 삼베라 하여도 원사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원단만을 짜서 그 지방 이름을 사용하여 판매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삼베 원사로 전남 순창지역의 手織法으로 짠 베는 '순창포'라 한다.⁸⁾ 따라서 원사와 원단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진정한 의미의 한국산 삼베는 매우 드물다. 현재 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기성 수의용 안동포는 밀도가 6·7승 정도로 성근 편이며 남해포는 약간 더 성글다.⁹⁾ 중국산 베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사와 제직을 모두 중국에서 한 것으로 가격 대는 비교적 낮으나 여기에도 생산방법이 기계직인지, 수직으로 제직했는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 원사도 중국산 대마사 100%를 사용하기도 하고 저마사와 혼방도 있으며 저마사 100%인 것도 있어서 상품의 차등이 심하다. 가장 하등의 품질은 기계직 원단인데 역시 중국산 대마, 저마, 아마 원사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직하여 들어온다. 극히 적은 물량이지만 견직물 수의도 판매되는데 대부분 중국산 실크로 만들어 우리의 전통 명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전통 수의용 명주는 광택이 은은하고 촉감이 까슬까슬하며 뽀뽀한데, 시판되는 기성 수의에 쓰인 중국산 실크는 합성섬유와 혼방된 듯한 번쩍거리는 광택과 후줄근한 촉감을 보인다.

2) 수의의 가격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기성 수의 가격은 <표 1>에서와 같이 장례식장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싼 것은 10만원 대부터 비싼 것은 390만원 대까지 있다. 수의의 대부분은 마직물소재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삼베 원사로 만든 수의는 200만원 이상이다. 그 이하의 가격대는 국산 삼베라고는 해도 원사는 중국 것을 쓴 경우가 대부분이며 삼베원사와 모시원사를 혼용한 것도 있는 등 원사의 성분, 혼용율, 제직섬세도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있다.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에서 판매하는 영광 1품 수의는 중국의 대마사 75%와 저마사 25%를 혼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직

으로 생산하여 순창포, 보성포라 하여 178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영광 4품의 경우는 중국산 대마 원사는 쓰지 않고 100% 중국산 저마로 수직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47만 6천원에 판매된다. 반면 영광 6품 수의는 중국산 저마 50%와 인견 50%를 혼용한 원사로 짠 기계직 원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싼값인 12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다.¹⁰⁾ 대체로 중국산 원사를 수직으로 짠 원단의 수의는 40만원 이상이고, 중국산 원사를 기계직으로 짠 원단 수의는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이다. 이러한 저급의 기계직 원단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 등 마섬유 이외의 섬유가 혼방된 경우가 많다.

견직물 수의는 마직물 수의에 비하여 아주 적어서 한 가지 정도만 구색으로 갖춰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산 실크로 만들었으며 판매가격은 5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중간 정도의 가격대에 판매되는데 한국의 명주와는 품질 면에서 월등히 떨어진다. 차병원에서 판매하는 견직물 수의는 국산 소재로 만들어서 고려 명주라는 상품명으로 140만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으나 명주의 품질이 수의 유물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¹¹⁾

3) 수의의 형태 및 치수

현재 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되는 수의 중에 보편적인 기성 수의 일습을 선택하여 그 형태 및 치수를 <그림 1~18>에서와 같이 도식화로 정리하였다.¹²⁾ 그림에서와 같이 수의의 형태는 한복형으로 속옷, 상하의, 표의를 기본 복식으로 갖추었고 그 외에 시신을 싸주는 부속품들이 있다. 형태상 특이한 점은 염습 시에 시신에게 입히기에 편리함을 고려하여 남녀 속저고리와 겹저고리를 별도로 만든 후 깃에서 고정시켜 한벌로 끼워 넣었고, 남자의 겹바지와 속바지, 여자의 속치마와 단속곳도 한 허리에 붙여놓았으며 남자 바지에는 허리띠와 대님을 붙여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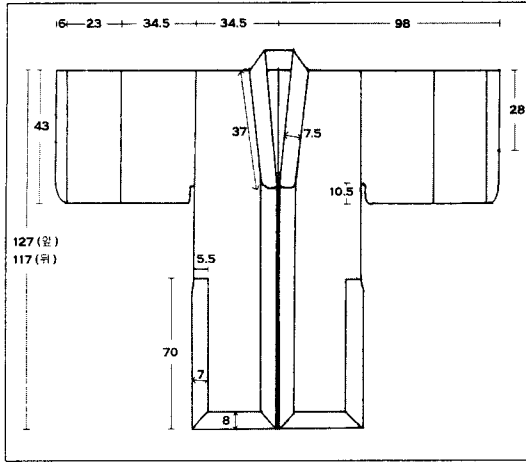
<표 1> 종합병원 내 대형 장례식장의 수의종류 및 가격

삼성의료원			서울중앙병원			세브란스병원			차병원			백병원		
품명	원산지 (원사)	가격 (만원)	품명	원산지 (원사)	가격 (만원)	품명	원산지 (원사)	가격 (만원)	품명	원산지 (원사)	가격 (만원)	품명	원산지 (원사)	가격 (만원)
안동포	안동 (대마)	370	안동포	안동 (대마)	370	안동포	안동 (대마)	390	고려10품	국산 (대마)	380	안동포	안동 (대마)	370
			국산 삼베		250	고급 토산수의	화순 (대마)	248	고려9품	국산 (대마)	250	남해포	남해 (대마)	260
						고급 전통수의	사천 (대마)	225	고려8품	국산 (대마)	200			
순창산삼베	순창 (대마)	190	삼베	중국 (대마)	190	수직 대마수의	중국 (대마)	195	대영701	중국 (대마)	180	대마포 1품	중국 (대마)	175
영광1품	고흥보성 (대마)	178		중국 (대마)	130	전 삼베수의	중국 (대마)	117	고려6품	국산 (대마/견)	160	특삼베 2품	중국 (대마)	110
궁중2호	중국 (대마)	159	명주	중국 (견)	110				고려명주	국산 (견)	140			
삼포전삼베	중국 (대마)	110							대영601		130			
									대영501		110			
순산베	중국 (대마)	97	삼베	중국 (대마)	90	수직 전통수의	중국 (대마)	98	고려3품	국산 (대마)	95	명주	중국 (견)	90
대마수직	중국 (대마)	87	전/삼베	중국 (견/대마)	90	수직마	중국 (저마)	73	고려1품	국산 (대마혼방)	75	보성포	중국 (대마)	77
평안수의	중국 (대마)	85	삼베	중국 (대마)	65	대마 기계직	중국 (대마)	51	대영201	중국 (합성)	65	기계대 마	중국 (대마)	50
궁중1호	중국 (대마)	66	삼베	중국 (대마)	60	특마수의	중국 (저마)	33	고려특품	중국 (면/베)	50	세포	중국 (대마)	42
명주고급	중국 (견)	54.6	명주	중국 (견)	50	면 가진수의	중국 (면)	12	섬유300	중국 (아마)	40	진마	중국 (대마)	33
영광4품	중국 (저마)	47.6	삼베	중국 (저마)	33				섬유200	중국 (마/레이온)	30			
전대마수의	중국 (대마)	34.2	삼베	중국 (대마)	28				섬유100	중국 (면/폴리)	16			
삼포대마직	중국 (대마)	33												
영광5품	중국 (저마)	24.4												
세포25수	중국 (아마)	23												
6품수의	중국 (아마)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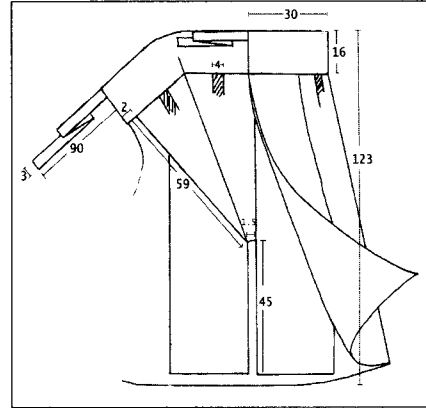
※2002년 1월 판매현황

수의품목 중 남녀 걸옷은 남자는 도포, 여자는 원삼이라고 각각 다른 명칭으로 호칭하고 있으나, 형태는 동일하였으며 단지 크기에서 길이는 남자의 도포가 더 길었고 화장은 여자의 원삼이 더 길었다. 또한 많은 생산업체의 치수 체계가 남녀 모두 대, 중, 소의 구분도 없이 한가지 치수로 정형화되어 있었는데 그나마도 납품업체마다 크기가 달랐음은 물론 같은 업체 내에서도 가격 대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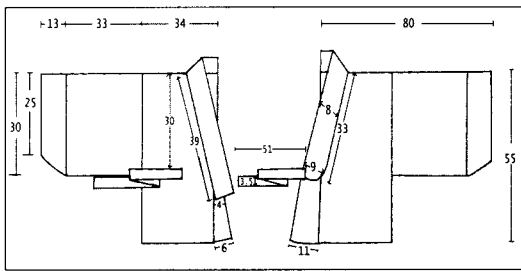
크기 차이가 있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대체로 고가의 수의는 치수가 크고 저가의 수의는 옷감을 절약하기 위하여 치수가 작게 생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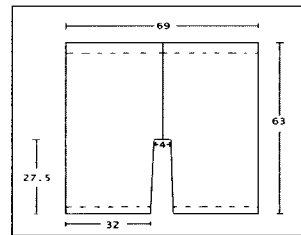
<그림 1> 여자원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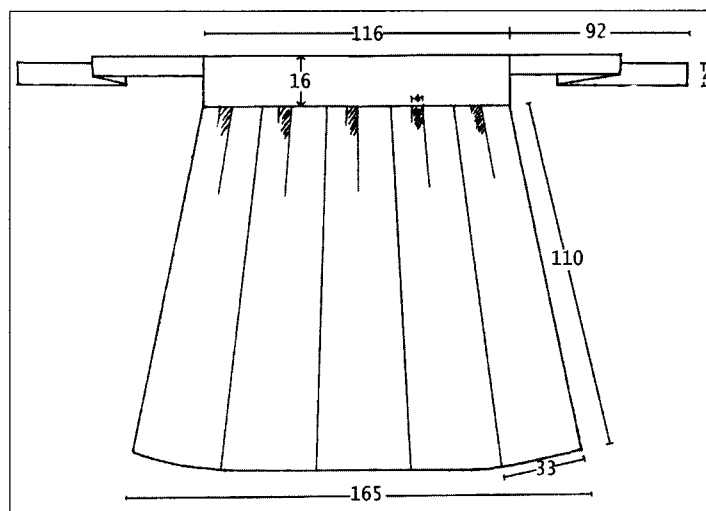
<그림 4> 여자속치마와 단속곳(허리말기에 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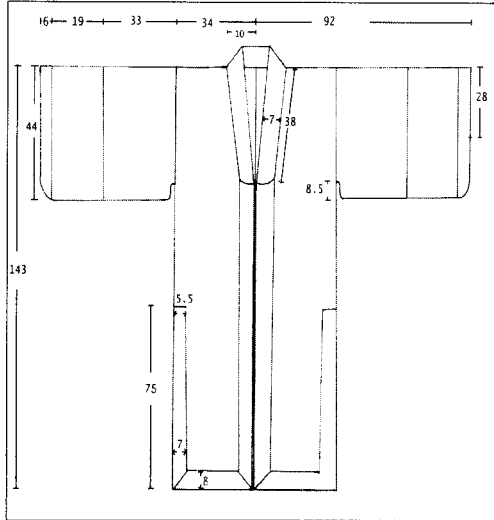
<그림 2> 여자저고리(겉저고리와 속저고리가 깃에 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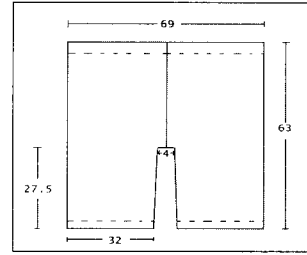
<그림 5> 여자속곳(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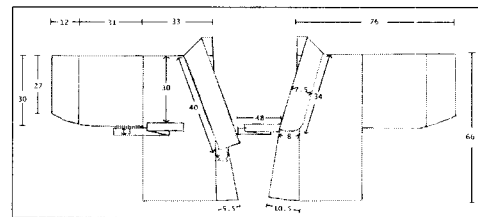
<그림 3> 여자 치마(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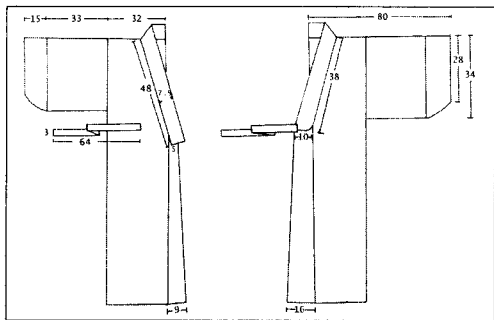
<그림 6> 남자도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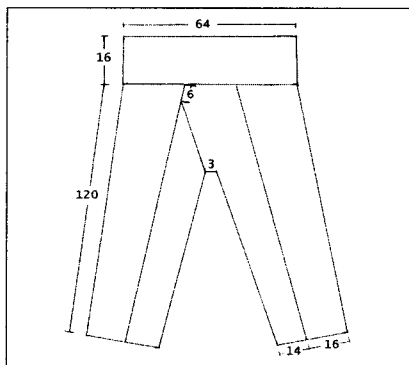
<그림 9> 속곳
(홀, 남녀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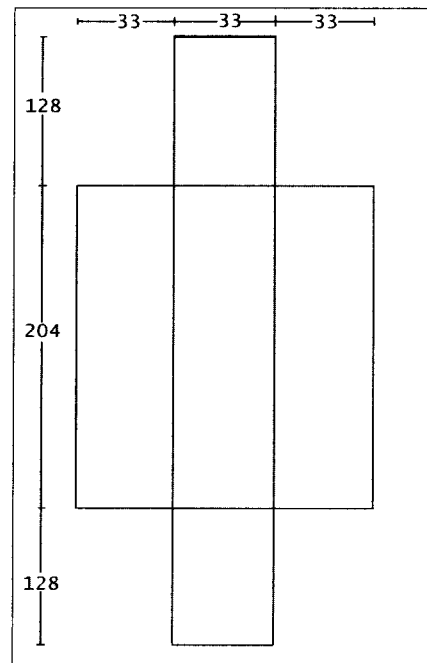
<그림 10> 남자저고리(걸저고리와
속저고리가 깃에 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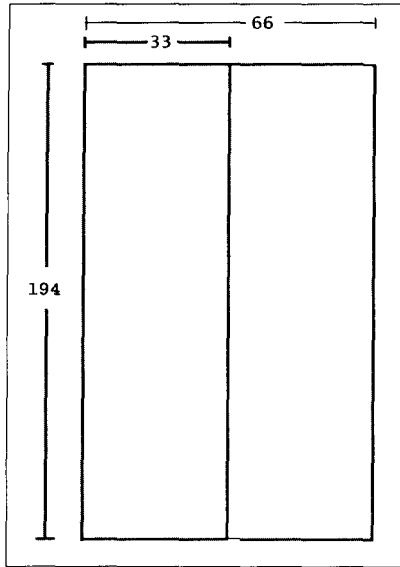
<그림 7> 남자 두루마기(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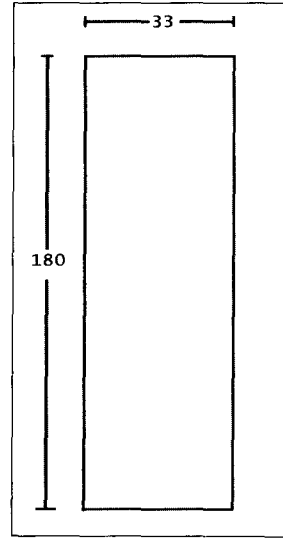
<그림 8> 남자 바지
(걸바지와 속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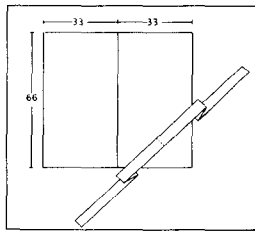
<그림 11> 옴포(남녀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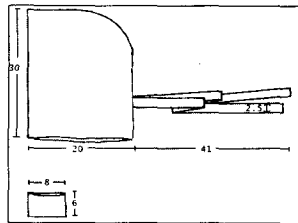
<그림 12> 천금(남녀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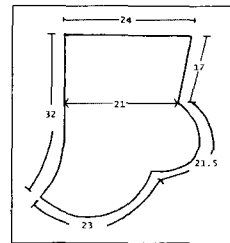
<그림 13>
지오(남녀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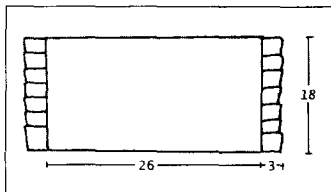
<그림 14>
떡목(남녀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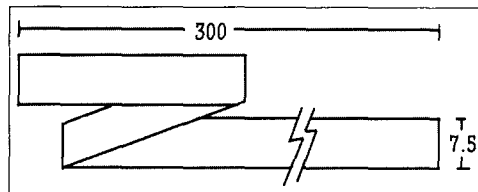
<그림 15> 약수,
오냥(남녀공통)



<그림 16>
버선(남녀공통)



<그림 17> 베개(남녀공통)



<그림 18> 장메(남녀공통)

III. 현행 수의의 문제점

1. 소재의 문제점

조선시대의 문헌자료나 유물 출토사례에 의하면 수의용 소재 즉 襲衣用 소재로 다양한 직물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의 대표적 예서인 《國朝五禮儀》에는 紵絲, 綃, 羅, 紬의 견직물류와 苧布의 마직물류가 기록되었다.¹³⁾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예서인 《喪禮備要》에는 緞, 紬 등의 견직물류와 細布의 마직물류, 綿布의 면직물류가 기록되었고¹⁴⁾, 《四禮便覽》에도 역시 緞, 紬의 견직물류와 綿布의 면직물류, 細布의 마직물류 등이 기록되었다.¹⁵⁾ 실제로 왕실의 국장 준비를 위한 《仁穆王后殯殿圖鑑儀軌》나 《仁敬王后殯殿圖鑑儀軌》에 기록된 襲衣用 소재는 紵絲, 紋緞, 紋紗, 綃, 紬 등의 견직물류와 苧布 등이다.¹⁶⁾ 17세기 양반의 상례자료인 吳希文의 《瑣尾錄》에도 白苧 赤衫이 기록되었고,¹⁷⁾ 송시열의 《宋書續拾遺》에도 단, 면주, 방사주, 방주, 사 등의 견직물류와 綿木의 면직물이 기록되었다.¹⁸⁾ 18세기의 사회상을 말해주는 《增補山林經濟》에도 “수의로는 錦緞이 제일이지만 농가에서는 어려우니 吐絀가 좋고 그 다음으로 細紬인데.....”¹⁹⁾라고 기록되었다. 즉 조선시대 습의의 기본 소재는 견직물이고 그밖에 부분적으로 면직물

과 마직물도 혼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습속은 조선말기는 물론 일제시대 초기 까지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19세기부터 20세기 초기까지의 한 집안의 장례절차를 기록한 김수근(1798-1854), 김병국(1825-1904), 한산이씨(1865-1915) 등의 《愼終錄》에도 수의용 소재는 紋緞, 冒緞, 貢緞, 貢綾, 紫縐, 熟甲紗, 土紬의 견직물이 주로 사용되었고, 그 외에 細布의 마직물과 細綿의 면직물도 부분적으로 사용한다고 기록되었다.²⁰⁾

반면에 수의용 의복이나 용품을 대부분 세포로 만들고, 두의나 기타용품에 부분적으로 견직물을 사용한 사례는 1925년에 쓴 金淑堂의 《朝鮮裁縫全書》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²¹⁾ 그러나 이 책 앞부분의 설명에 ‘수의는 각각의 처지에 따라 다르며 본 저서에는 당시 중류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포 수의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중류층에서 수의용 소재로 세포가 일반화 된 것은 이 무렵부터로 추정되며, 상류층에서는 이때까지도 견직물 수의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며 더욱이 일본의 지배하에서 한국고유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일은 지극히 어려웠다. 따라서 가격대가 비싼 전통 견직물 수의보다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개량형 삼베 수의가 중류사회부터 보편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지금과 같은 전 국민이 삼베수의를 선호하는

<표 2> 조선시대 문헌자료에 기록된 습의소재

	文獻	頭衣	衣服(表衣 上下衣)	기타 (악수,떡목 등 부속품)
15세기	國朝五禮儀(1474)	早羅	羅, 紵絲, 綃	羅, 綃, 紵絲
16세기	瑣尾錄 (1601)		白苧	
17세기	喪禮備要(1620)	緞, 紬	細布, 緞, 紬, 綿布	緞帛, 紬, 緞
	仁穆王后殯殿圖鑑儀軌(1632卒)	緞, 綃	紵絲, 紋緞, 紋紗, 綃, 紬, 白苧	綃
	仁敬王后殯殿圖鑑儀軌(1680卒)			
	宋書續拾遺(1689卒)	段	綿紬, 紗, 紡絲紬	段, 紡紬, 紡絲紬, 綿木
18세기	四禮便覽(1746)	緞	白細布, 白緞, 緞, 紬, 綿布	紬, 綿布
19세기	(1844)	緞, 紬, 練帛	細布, 緞, 紬, 綿布	紬, 綿布, 帛, 絹, 早布
	金洙根 愼終錄 (1798-1854)	貢緞,	紬, 極細布, 貢緞, 禾漢緞	貢緞
20세기	金炳國 愼終錄 (1825-1904)	貢緞, 甲紗	細布, 貢緞	貢緞
	韓山李氏 愼終錄(1865-1915)	貢段	貢段	貢段
	金淑堂朝鮮裁縫全書 (1925)	貢緞	細布	貢綾, 紗, 細布, 麻布

현상은 일제시대 이후 전통복식문화의 하향 평균화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현상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문헌자료 내용은 실제로 근래에 발굴된 출토복식 유물에서도 입증되었다. 출토된 수의의 소재로는 <표 3>에서와 같이 대부분 紬, 紋緞, 貢緞, 紋紗 등의 견직물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모시, 삼베, 면포 등의 마직물과 면직물도 한삼과 같은 속옷이나 버선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1700년대 이익정(1699-1782)의 출토품에서는 수의를 새롭게 만든 사례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는 가장 비싼 옷감인 공단을 사용하였다.²²⁾ 이러한 현상은 1800년대 말까지도 계속되었음이 이연웅(1818-1879)의 출토수의에서 입증되었다.²³⁾

품으로 만들어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여 최근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있다.

즉, 견직물 수의가 좋으나 서민들에게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값싼 삼베 수의를 입혔던 조선시대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재 명주보다 더 비싸게 유통되며 동시에 전통에 기본을 두지도 않은 삼베 수의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섬유실험결과에 의한 섬유의 견뢰도는 일반적으로 단백질 섬유인 견직물이 셀룰로오스 섬유인 마직물보다 낮아서 견직물이 마직물보다 쉽게 손상된다. 고분에서 출토된 수의의 사례에서

<표 3> 조선시대 출토수의에 사용한 소재

出處	性別	頭衣	衣服(表衣, 上下衣)	기타 (악수, 먹목 등 부속품)
李碩明(1583)	男	綿紬	綿紬	綿紬
李應台(1586)	男	緞	綿布, 綿紬, 苧布, 麻布	緞, 綿布, 麻布
吳希文(1597)	女	-	苧布	-
一善 文氏(16세기)	女	緞	苧布, 綿紬, 紋緞, 綿布	綿布, 麻布, 緞
長馨鄭氏(1614)	女	-	紋緞, 綿紬, 苧布	綿布, 紋緞, 貢緞
崔 櫨 (1698)	男	貢緞	紋緞, 貢緞, 絹, 綿紬	貢緞
義原君(1722)	男	無紋緞	苧布, 細紬, 雲紋緞, 紬	無紋緞, 金線緞, 棉布
安東權氏(1722)	女	無紋緞	金線緞, 花紋緞, 紋紬, 紬	綿布, 無紋緞, 花紋緞
李益炡(1782)	男	貢緞	貢緞, 紬	貢緞
李沈應(1877)	男	無紋緞	苧布, 無紋緞	無紋緞

이처럼 수의 소재에 관한 조선시대의 전통은 지난 한 세기를 지나면서 사회 문화상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변형되었으며 '명주를 사용하면 잘 썩지 않으며 시신의 뼈에 붙는다'거나 '모시를 사용하면 자손의 머리가 희어진다'²⁴⁾는 근거를 알 수 없는 구전을 이유로 현재 일반인들은 수의용 소재로 명주나 모시를 피하고 삼베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제는 삼베 선호 현상으로 국산 삼베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품질이 좋은 안동포는 더욱 품귀 현상이 생겨서 紋緞, 紋紗, 明紬로 만든 견직물 수의보다 삼베로 만든 수의 가격대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중국산 삼베를 수입하게 되었고 때로는 저가의 중국산 삼베를 국산 삼베의 유사 상

도 묘의 토질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緞類나 明紬옷이 삼베옷보다 더 손상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특히 회를 사용한 분묘는 토질이 알카리성이 되므로 알카리에 강한 삼베류 보다 명주류가 더욱 약화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일괄적으로 삼베 수의에 비하여 명주와 같은 견직물 수의가 썩지 않는다는 주장은 낭설이라고 생각된다. 즉 수의의 진토여부는 봉분의 토질상태와 수의로 사용한 섬유간의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섬유가 잘 썩는가 여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는 모시와 무명도 수의의 재료로 선호하지 않으나 <표 2>의 조선시대 문헌자료 및 <표 3>의 유물발굴 자료에 綿布나 白苧布를 사용한 근

거가 있다. 이들 섬유도 삼베와 같이 셀룰로오스 성분의 천연 섬유이므로 매장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삼베와 동일한 진토 결과를 보일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장묘제도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추세이므로 수의의 재질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섬유가 잘 썩는가에 기준을 두기보다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천연섬유 중에서 전통을 살린 아름다운 견 섬유, 섬세함과 정갈한 이미지의 모시와 삼베, 값싸고 실용적인 무명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수의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종류 및 형태의 문제점

현행 기성수의를의 형태 및 일습을 갖추는 품목의 종류가 획일화 되어서 고가품이나 저가품이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대의 수의는 품질이 조악하여 선택 구입하기 곤란한 지경이다. 시판되고 있는 기성수 의 품목은 앞 단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16-18 품목이 있다. 이들 품목 중에는 반드시 첨가되어야 하는 것이 생략되기도 하였으며, 혹은 현대염습절차에서 필요없는 품목이 중복된 경우도 있다.

현대 기성수 의 중 頭衣는 대부분 별도로 마련된 것이 없으며, 간혹 상표에 따라 근거를 알 수 없는 네모형의 모자가 첨가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禮書에 기록된 수의용 頭衣는 남자는 망건과 복건이 기본이며²⁵⁾ 그밖에 출토 유물로는 감투형 모자 즉 소모자도 다수 출토되었다.²⁶⁾ 드물기는 하지만 복건이나²⁷⁾ 사모가²⁸⁾ 출토된 사례도 있다. 여자의 두의는 《喪禮備要》나 《四禮便覽》등의 예서에掩이 기록되었으며²⁹⁾ 유물로는 감투형의 모자와³⁰⁾ 공단의 여모가³¹⁾ 출토되었다. 따라서 현대에도 먹목으로만 얼굴을 감싸는 것보다는 예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적합한 형태의 두의 종류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대 남자수 의의 表衣는 일괄적으로 도포라 부르는 포 형태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도포는 사대부의 편복이며 실제로 습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 습용 表衣에는 단령이나 심의, 직

령이 주로 사용되었으며³²⁾ 조선시대 도포가 수의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1784년 安鼎福의 상례자료인 《順庵集》에서 유일하게 보여진다.³³⁾ 따라서 현재와 같이 도포가 수의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 역시 세포 수의가 보편화 될 무렵 즉 193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직령포 대신에 근대의 예복인 도포로 대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의는 도포로 해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다 전통에 근거를 두어 단령, 심의, 직령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현대의 예복인 두루마기 정도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

현대 여자수 의의 表衣도 일괄적으로 원삼의 형태이다. 그러나 조선전기 여자의 습용 표의에는 장삼이나³⁴⁾ 단령이³⁵⁾ 출토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원삼도 출토되었다.³⁶⁾ 따라서 여자 수 의도 원삼으로 획일화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통에 근거를 두되 그 시대에 맞는 수 의 형태 및 품목을 다 변화해야 한다. 즉 조선전기의 습속에 따라 원삼 이외에 장삼을 쓸 수도 있고, 현대 한복의 겉옷인 두루마기나 당의 등의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전통 足衣로는 버선, 습신, 행전 등이 사용되었다.³⁷⁾ 그러나 현대 기성수 의에는 모두 버선만을 마련하고 행전과 습신은 생략하였다. 수의는 머리부터 발까지의 일습을 마련하여 예를 갖추는 것인데 다른 품목과 비교할 때 습신이 없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며 예의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행전은 생략하더라도 간단한 습신정도는 반드시 포함시켜 예의에 맞는 일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부속품의 경우도 기성수 의에는 일반적으로 먹목, 악수, 소낭, 천금, 지요, 베개, 염포, 교포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품목구성은 가경의 고저를 불문하고 획일적인데 낮은 가격대의 수 의에서는 복잡한 일습을 가격한도에 맞춰 마련하느라 조악한 품질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가품에서는 형식적인 품목은 지양하고, 염습에 꼭 필요한 품목만으로 종류를 줄여서 제대로 바느질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피장자의 취향이나 경제사정에 따라 비록 낮은 가격대의 수 의를 선택할 때에

서도 망자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기성수의 형태 및 종류를 다변화 시켜야한다. 예를 들면 고가품에는 시신을 잘 쌀 수 있도록 천금과 지요 외에 대령금을 더 포함시킬 수 있고 저가품은 천금, 지요, 염포, 베게 등을 생략하고, 《喪禮備要》에 기록된 肩³⁸⁾를 활용하여 시신을 간단히 싸주는 방법 등 품목의 간략화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기성 수의의 봉제방법에도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 남자수의를에서 도포라 부르는 포의 깃에 여자의 원삼과 같이 맞깃을 붙였으며 양 옆선에는 무를 달지 않고 옆선을 터서 선처리하였고, 등에는 전삼도 없이 제작되었다. 즉 이름만 도포로 붙였을 뿐 형태는 여자의 원삼과 동일하니 결과적으로 남자도 여자와 동일한 원삼을 입게 되었다. 그 외에 남녀의 두루마기에도 모두 무가 달려있지 않고 맞깃을 붙여 명칭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형태로 만들었다<그림 6, 7>.

현행 기성수의를의 색상은 대부분 원래의 직물을 염색하지 않은 상태의 素色이 대부분이며 여자 원삼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유색을 사용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러나 소재의 수의를 만드는 현상은 1925년 金淑堂의 《朝鮮裁縫全書》에 수의의 색은 청은 청뎃물, 홍은 잇다홍, 황은 회나무 열매, 자주는 지치, 분홍은 연지로 물감들이기가 원칙이나 염색이 불편하므로 소재의 새포로 많이 한다는 기록³⁹⁾으로 미루어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죽음을 새로운 출발로 보고 수의를 결혼할 때 예복이나 생시 가장 좋은 옷으로 곱게 성장하였던 과거 우리의 전통관념에서 벗어난 것이며 삼베수의를의 유행과 함께 喪主의 喪服用으로 염색하지 않은 거친 삼베를 사용하여 온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기성복 수의 형태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치수가 남녀구분이 없이 일원화된 점이다. 그 치수마저도 업체마다 차이가 나고 한 업체 내에서도 上品보다는 가격이 낮은 下品으로 갈수록 치수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수의 제작 시에 대, 중, 소에 따른 표준화된 치수체계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시신의 체구가 큰 망자에게는 여유분이 부족하고, 체구가 작은 분에게는 여유분이 너무 많

아 염습을 할 때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작거나 큰 옷을 입히는 것은 정성을 담아 부모의 수의를 준비한다는 우리의 민족정서에서 벗어나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옷감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원단이 비싼 경우에는 가격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기성복 수의는 키와 가슴둘레, 화장을 기본으로 하여 적어도 남녀 각각 대, 중, 소 세 치수 정도는 구분하여 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최근에는 시신의 염을 가족이 직접하지 않고 장의사나 병원 영안실에 소속된 ‘염사’가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수의 비용만 지불할 뿐, 형태 및 치수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없으므로 수의의 잘못된 형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손들은 고가의 수의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은 말 한마디 없이 불편한 수의를 입고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3. 가격 및 유통의 문제점

현행수의를의 가격은 재료, 판매형태, 지역 등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실제로 유통되는 기성복 수의는 대부분 삼베로 만들었고 가격대는 한국산 삼베로 만든 경우에, 도시의 대형병원 장례식장 기성복 수의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200만원부터 390만원까지이며⁴⁰⁾, 시장의 수의전문 상점에서는 이보다 약간 싸게 책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 원사 및 원단 품질의 차이를 두어서 좋은 소재를 쓸 경우 가격대가 더 올라가기도 한다.⁴¹⁾ 한복점에서 안동포로 맞춤을 할 경우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도 호가하고 8새 이상의 고운 안동포로 주문할 경우에는 원단의 생산량이 극히 적어서 구입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이 없다고 한다.⁴²⁾

이처럼 현재는 국산베로 만든 것을 가장 고급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삼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값싼 중국산 베를 수입하게 되었다. 앞 단원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중국산 베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사와 제직을 모두 중국에서 한 것으로 가격

대는 비교적 낮으나 여기에도 생산방법이 기계적 인지, 수직으로 제직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원료도 삼베원사인지 모시원사인지 레이온원사인지에 따라 상품의 차등이 심하다. 심지어 중국산 베라고 부르는 상품의 60-70%정도는 우리의 삼베와 같은 '대마' 원사가 아니고 모시와 같은 '저마' 원료를 방적사로 뽑아 기계적으로 제직한 것이라 하니,⁴³⁾ 결과적으로 모시 수의를 싫어하는 소비자 들은 속아서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마제품의 수의 종류는 한국산 대마를 수직으로 짠 안동포에서부터 중국산의 저마를 방적사로 뽑아 기계적으로 짠 저마포에 이르기까지 원단의 가격대가 다양한 것에 반하여 수의 제품관리 규정에는 제품의 라벨에 "마 100%"라고만 표기하면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과연 수의 품질이 가격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수의소재에 대한 유사품 시비가 끊임없이 소비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원사와 원단의 생산체계 관리가 허술한 가운데 수의 제조자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품질관리 체계로 들어가는 수의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완성된 수의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원단 및 원사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 및 유통구조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원사와 원단 품질에도 등급표시가 되도록 수의 관리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장묘 제도의 관행이 매장 일변도에서 화장으로 옮겨가는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여 현행 기성 수의의 변천과정 및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조선시대에 수의의 본래 의미는 내세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예복으로 망자가 생전에 입었던 가장 좋은 복식을 그대로 입거나 가장 좋은 옷감으로 곱게 만들어 입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였다. 현재와 같은 삼베 수의제도는 20세기 이후에 형성

된 습속으로 조선시대의 전통수의 제도에 뿌리를 두었으며 전수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1980년경부터는 수의의 기성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현재는 전체 수의의 95% 이상이 기성복으로 대치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수들은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상업주의가 혼재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첫째, 수의 소재를 소재 삼베로 해야된다는 생각은 조선시대 전통수의를 잘못 이해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견직물과 삼베, 모시, 무명 등의 친 환경적 천연소재를 모두 활용하도록 하여 실용적이면서도 품위를 일치 않으며 동시에 아름다운 수의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현행 수의는 체구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남녀의 구분조차 없이 한가지 치수로 생산되고 있다. 새로운 수의에는 치수의 표준화 개념이 필요하며 적어도 대, 중, 소 3종류의 치수체계가 개발되어 수의가 예를 갖춘 옷으로서의 망자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원단의 낭비를 막아 제품의 가격대를 낮추도록 한다.

셋째, 수의 생산업체들이 수의의 역사 및 형태에 관한 연구를 등한시하고 단지 업체의 생산 공정상에 편리함으로 세부형태를 변질시켜 만든 수의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형태의 수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생겼다. 남자수에서 도포라 부르는 포의 깃에 여자의 원삼과 같이 맞깃을 붙였으며 양옆선에는 무를 달지 않고 선을 둘러 옆선을 터놓았고 등에는 뒷자락도 없이 제작되었다. 즉 이름만 도포로 붙였을 뿐 형상은 여자의 원삼과 동일하니, 결과적으로 남자도 여자와 동일한 원삼을 입게된 셈이다. 남녀의 두루마기에도 모두 무가 달려있지 않고 맞깃을 붙였다.

넷째, 수의의 형태 및 종류가 획일화되어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 조선시대와 같이 표의용으로 단령, 심의, 도포, 두루마기, 원삼, 장옷, 당의 등 아름다운 전통수의를 활용하여 다양하고도 한국적 정체성을 살린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의 및 기타 염습구의 경우에도 품목을 조절하여 피장자의 가치관이나 장묘방식에 따라 탄력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의의 다양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수의가 기성화 되는 과정에서 수의의 품질 표시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합당한 적절한 상품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유사상품과 구분도 곤란하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시판되고있는 기성수의는 전통이 왜곡되어 전달되었고, 다시 기성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며,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조선시대의 훌륭한 수의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수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한국적 정체성이 잘 표현된 바람직한 수의문화를 정립하는 일을 다음 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 1) 『國朝五禮儀』卷之八, 凶禮, 1475年.
- 2) 李德懋, 『靑莊館全書』, 1775年.
- 3) 이은주, '일선문씨와 이용태묘 출토복식 고찰', 안동대학교 박물관 편,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용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 2000, pp.188-189.
- 4) 이익정(1699-1782)의 묘에서 출토된 수의는 공단으로 새롭게 만들었으나 의복의 치수는 생전의 것과 비슷하였고, 이연용(1818-1879)의 묘에서 출토된 수의도 역시 공단으로 새롭게 만들었는데 의복의 치수가 생전의 것보다 매우 크게 제작되었다.
- 5) 조선총독부령 123호, 1912년.
- 6)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調査報告書』喪禮, 1冊-17冊, 1969年-1987年.
- 7) 임준, 삼포실버드림 기성수의제작업체 사장, 인터뷰 조사. 2001년 4월.
- 8) 이덕진, "현행수의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상례문화의 재조명을 위한 세미나, 출토복식연구회·예지원, 2001년 5월, p.40.
- 9) 삼성의료원, 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안동포.
- 10) 삼성의료원에서 판매하는 (주)영광의 수의가격 인터뷰조사 및 (주)영광에서 생산하는 수의 인터넷정보, 2002년 1월.
- 11) 대형병원 장례식장(삼성의료원 서울중앙병원 세브란스병원 차병원 백병원)에서 판매하는 기성 수의 가격조사, 2002년 1월.
- 12)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등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삼포실버드림(주)의 고가 수의를 도식화함.
- 13) 『國朝五禮儀』卷之八, 1475年.
- 14) 申義慶, 『喪禮備要』, 上 七, 1621年.
- 15) 李緯, 『四禮使覽』, 卷之三, 1746年.
- 16) 『仁穆王后殯殿圖鑑儀軌』1632年, 『仁敬王后殯殿圖鑑儀軌』1680年.
- 17) 吳希文, 『瑣尾錄』, 1601年, (국사편찬위원회편 영인본, 1962년).
- 18) 宋時烈, 『宋書續拾遺』附錄卷二, 1689年.
- 19) 柳重臨, 『增補山林經濟』8, 9冊, 1776年.
- 20) 『正文公 愼終錄』(金洙根 喪事, 1854年), 『忠文公 愼終錄』(金炳學 喪事, 1904年), 『李氏 愼終錄』(韓山李氏 喪事, 1915年) 溫陽博物館編, 『京畿道 半月地域 安東金氏 墳墓 發掘調査報告書』, 1989年.
- 21) 金淑堂, 『朝鮮裁縫全書』, 民俗苑, 1925年.
- 22) 고부자,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정 유물 소고', 『韓國服飾』19號,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2001년, pp.85-98.
- 23) 조효숙, '인평대군과 의원군일가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전주 이씨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경기도박물관, 2001년.
- 24) 광명숙, '우리나라 수의(壽衣)문화와 제작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년, pp.33-36.
- 25) 『國朝五禮儀』卷之八, 1475年. 申義慶, 앞의 책, 上, 七, 1621年. 李緯, 앞의 책, 卷之三, 1746年.
- 26) 국립민속박물관,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2001. 이은주, '조선 전기 염습의의 일례 -金欽祖 분묘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比較民俗學』, 1998.
- 27) 이순원의, 『李碩明墓 出土服飾 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년.
- 28) 박성실, '구포리 출토 崔權墓 발굴보고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제 14호, 1996년.
- 29) 申義慶, 앞의 책, 上, 七, 1621年. 李緯, 앞의 책, 卷之三, 1746年.
- 30) 이은주, '16세기 중엽 여성 殯襲衣의 일례: 경북 안동시 정상동 일선 문씨 분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服飾』, 第48號, 1999년, p.166.
- 31) 유희경, 김미자, 『경기도 반월지역 안동김씨 분묘 발굴조사보고서』, 온양민속박물관, 1989년.
- 32) 申義慶, 앞의 책, 上, 七, 1621年. 李緯, 앞의 책, 卷之三, 1746年.
- 33) 安鼎福, 『順庵集』卷 十四 四十七, 1784年.
- 34) 이은주, 앞의 글, 1999년, p.166.
- 35) 이은주, '장기정씨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포항 내단지 장기 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년.
- 36) 송미경, '안동권씨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 박물관, 2001년.

- 37) 申義慶, 앞의 책, 上, 七, 1621年.
李穡, 앞의 책, 卷之三, 1746年.
- 38) 申義慶, 앞의 책, 上七, 1621년, :帽는 質과 殺로 이루어졌는데 龕을 마친 다음에 屍身의 형체를 가리기 위한 커다란 주머니의 형태이다.
- 39) 金淑堂, 앞의 책.
- 40) 대형병원 장례식장(삼성의료원, 백병원, 차병원, 서울중앙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장례식장내 수의판매점 인터뷰조사, 2002년 1월.
- 41) 동대문 광장시장 내 광림상회, 평화상회, 진명사 등의 수의전문업체 인터뷰 조사, 2001년 12월.
- 42) 강남에 소재한 허영, 이숙진 등 맞춤집 인터뷰 조사, 2001년 12월.
- 43) 임준, 앞의 인터뷰.